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요한이 이 서신의 서두에서 강조하는 '사귄'의 의미를 깨닫고, 성도들과 및 하나님과 깊은 사귀를 추구하며 살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요한일서 1:1~10

묵상할 말씀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7절).

찬송 : 289장(통 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당신이 누군가 사귀었다고 할 때, 그 '사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이해를 가지게 한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생명의 말씀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본문에서 요한은 그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수신자들이 하나님과 사귀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저자 요한은 그 당시 영은 선하고 육이나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기록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쳤다(가현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부인했다.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육체의 방종과 쾌락주의에 빠졌다. 아울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지식을 얻는 자는 정결하게 되며 육적인 죄가 더이상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요한은 그러한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도움말 :

- 생명의 말씀(1절): 요한은 요한복음 1:1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로고스)’ 그 자체이며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선포한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지칭한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영생을 연결하여 설명한다(요 3:16 참조).
- 우리(1절):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을 의미한다.
- 나타내신 바 된지라(2절, 헬: 에파네로테): ‘에파네로테’의 원형 ‘파네로오’는 ‘분명하게 나타내다’, ‘알게 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재림’ 등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 사귀(3절, 헬: 코이노이안): ‘코이노이안’의 원형인 ‘코이노니아’는 ‘공통된’이라는 뜻을 가지는 ‘코이노스’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구성원들이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빛(5절, 헬: 포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인 속성, 특별히 거룩함을 나타낸다.
- 어둠(5절, 헬: 스코티아): 죄와 불의를 나타낸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귀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1-2절)

요한은 예수님을 그가 직접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분이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요한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자가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다른 제자들 포함)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석 질문】 요한은 독자들에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배경 설명 참조)

그 당시 독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밝힘으로써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가현설(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까지 밝혀주고 있다.

【거울 질문】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요한의 이러한 소개는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요한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은 그가 직접 경험한 분이다. 그렇기에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온전히 배격할 수 있었다. 진정한 신앙은 지성과 감성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에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요한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만났는가? 당신에게도 요한과 같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러한 경험적 신앙이 있는가? 지금도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2. 【관찰 질문】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목적을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귀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석 질문】 그들의 사귀게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기초할 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요한은 독자들이 자기와 사귀는 것을 넘어, 그가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한다. 참고로, 요한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그를 포함한 수신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힌다. 이 말씀에 기초해 볼 때,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특징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울 질문] 당신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며(마 28:19-20),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귀는 가지도록,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관찰 질문]**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귀는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5-7절)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귀는 경험할 수 있다.

[해석 질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귀는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7-10절, 도움말 참조)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을 드러낸다. 반면에, 어둠은 불결함과 부패와 죄악을 상징한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가지기 위해서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빛이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사귀는 가진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사람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엡 5:9 참조)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당시 영지주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요한은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가지는 자들은 죄를 지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들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된다(9절).

[거울 질문] 당신은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사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빛의 열매들,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

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고, 빛을 비추는 것을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마 5:16 참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죄악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겠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것이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누는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요한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귀는 관계를 갖기 위해 당신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러한 실천을 통해 주님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봅시다.**

실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기;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고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기 등.

2. **우리 소그룹 상호 간에 그리고 우리 소그룹과 하나님 사이에 더욱 깊은 사귀는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봅시다.**

실례)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세미나나 집회에 함께 참석하기; 이웃을 섬길 목적으로 하는 가라지 세일; 몸이 아프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들을 함께 만나 위로해 주기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소그룹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한다면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